

익산 디어로움 선순환 효과 '탄탄'

누적 발행액 약 1조3000억원 이상 지역 상권 유입... 소비 유발 효과 UP

전국 최고로 인정받은 지역화폐 익산디어로움 발행액이 1조4000억을 육박해 대규모 선순환 자금으로 지역에 풀리면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효과를 특

929억 원 달해 총 가입자 수가 22만2천 여명 인 것을 감안할 때 1인당 평균 86만 원이 넘게 혜택을 돌아간 셈이다

특히 최대 20% 디어로움 혜택을 유지하며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선지급방식으로 변경했다

시는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충전할 때 추가적립금으로 먼저 지급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금 최대10%는 그대로 유지해 최대 20% 혜택 지속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반영해 충전인센티브 지급 구매액을 이달부터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는 물가인상이 치솟는 상황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관련 정책을 고도화해 지역 대표 경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디어로움은 이제 민생경제의 한 축이 됐다"며 "최대 혜택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의 국가철도공단은 10일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익산, 숲에서 만나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본격화... 숲길·쉼터 조성 주민 휴식공간으로

익산시 송학동과 오산면을 잇는 장항선 폐철도 유휴부지가 축구장 10개 넓이의 도시숲으로 탈바꿈한다

익산시와 국가철도공단은 10일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익산 숲에서 만나다라는 컨셉으로 송학동과 오산면 장항선 폐철도 3.5km, 면적 7ha에 숲을 조성하고 각 지점마다 쉼터와 철도 간이역을 복원해 특색있는 공간으로 마련한다

올해는 송학동 구간 1.5km, 3ha를 조성하고, 오산면 구간 2.0km, 4ha는 2024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교통도시 익산의 근현대 역사를 담고 있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장항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철거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시는 2021년 9월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철도 유휴부지에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35억원을 확보하고 주민설명회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의 계획을 도출했다

허진 부시장은 "이번에 조성되는 도시숲이 도시 경관의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송학동과 오산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도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해달라"

정현을 익산시장, "주요 현안사업·국가예산 사업 원활히 추진 위해"

정 시장은 1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주요 현안사업이나 국가예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긴밀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전북도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업무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 시장은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추경예산안 관련 의회 대응에 철저를 기해줄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시장은 "전 부서에서는 의회에 적극적인 실무와 이해를 구하는 등 추경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하반기 업무 추진에 지장 없도록

하리"고 지시했다

이어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자유롭게 유연한 하계휴가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 "부서장 책임하에 휴가 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휴가를 분산 실시하라"며 "그간 격무로 치진 직원들이 충분히 재충전하고 업무에 복귀해 더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 새만금 신항 관할권 확보 위해 민·관·학 머리 맞대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영 고병수)가 10일 군산새만금신항의 개발 촉진과 군산시 행정구역 관할권 사수를 다짐하는 2023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동서도로, 신항방파제 등 매립지의 관할구역 확보를 위해 역지 주장을 펼치는 김제시와 김제시의 회를 성토했으며 그동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3차례 심의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급후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신항과 군산항을 군산시 단일 행정구역으로 관리해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배후산업을 지원, 대중국

및 대동남아시아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시켜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육성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김제시와의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으로 신항의 본격적인 개발 및 이

용에 차질이 빚어서는 안되며 새만금용을 넘어 서해안 시대를 주도할 군산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군산시에 주문했다

위원회는 시가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군산항·신항 One-Part 전략수립 용역 수행자와 함께 추가적인 군산시 행정구역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고 향후 포럼, 시민토론회 등을 준비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27만 군산시민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익산시가 장애인 체육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국대회에 이어 전지훈련지로 선정되며 장애인 체육 명품도시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훈련을 진행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제2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성공으로 종목별 전국장애인선수권대회와 전지훈련지로 인기가

대한장애인체육연맹이 주최하는 장애인육상 국가대표 선발대회인 제4회 전국장애인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9월 10일부터 4일간 개최, 600여명 선수수와 400명 임원 등 총1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익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연맹은 신인선 수단 전지훈련을 이달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회에 걸쳐 총 60일간 전지

시는 연이은 전국규모 장애인대회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문화를 활성화하고 숙박·식당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가능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며 장애인체육을 선도하는 명품도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